

동일대해로 진군의 뜻을올려라 한반도여!



◇사진 : 윤덕주기자

억센팔뚝, 힘찬 발걸음으로

연두사

연두사 진정 오늘은 화합과 안정의 시대
인가. 구태(舊苔)를 청산하지도 못
하였으면서 오로지 평화의 너울을
흔 깨말과 보수의 기만적 안정논리
에 안주해야 하는가.

대화의 시대니, 보통사람의 세상이니하는 빛좋은 말
들은 무진년(戊辰年)과 함께 보내버리자.

분명 역사는 투쟁으로 점철되는 것이며, 그 역사는 바로 민중의 것이지 않은가. 더이상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패배에 다름아니며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업을 망각하는 것이다.

사회적 여건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나 이는 가설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눈에 더 짙은 이 개량기의 기회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을 졸라매는일이 될 것이리라.

보라, 강한 물리력에 기반을 둔 집권의 꿈은 깨어
졌으나, 저기 태동하고 있는 개량의 보수주의를.

외세는 아직도 이방 한반도를 잠아먹고 있고, 뿌리 뽑아야될 과거의 잔재들이 산적해 있으며 그 앞엔 민족의 통일외지를 희석시키려는 집권자들의 마수가 기다리고 있지 아니한가. 그 어느것보다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는 우리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기사년(己巳年)은 보다 힘있는 투쟁으로 집결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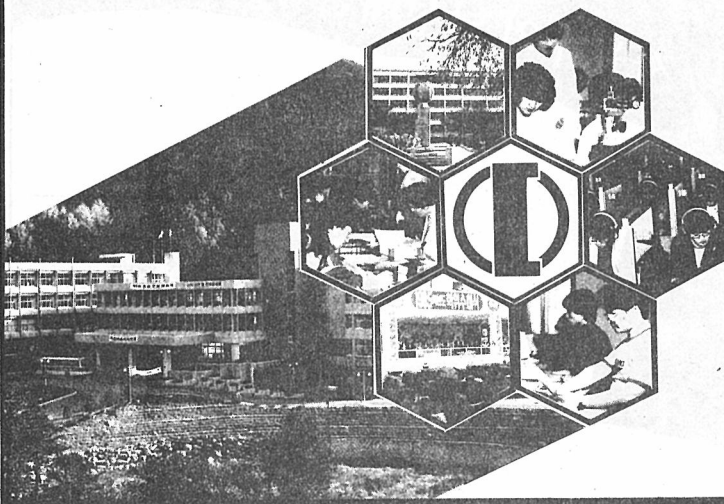
하여 오늘은 단결의 시대라 명명하자. 맨주먹뿐인 우리는 단결이 없이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계속되는 가식적 회유와 제도적 탄압을 물리치고 개량 의 기회주의를 혁파하는 대개기가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량되지 않기 위한 강고한 자기다짐을 대중속에 힘있게 계속해야 한다.

앞으로 한발을 내딛음에 있어 오늘날 장애가 되는 것은 강하고 잔악하나아는 불련이다. 아니라 갑록적인 안
정성을리듬을 있어서는 할련이다. 한발 내딛는 것 이외의
모든것, 즉 정체는 후회에 다름아니며, 정체는 후회
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민중의 품으로 되찾아와 뜨겁게 타올랐
던 광주의 불꽃과 광주노동 보색 뛰어오르 있음은 이
를 열심히 증명하고 있지아니한가. 현하 진행되고 있
는 광주노동일논의를 마치 체제를 뛰어넘은 듯 호도
하고 있으나, 이는 「두개의 한국」을 고착시키기 위한
작업에 다름아니라.

무진년에는 무엇인가 확실히 이루었다는 헛된 자만은 역시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기사님의 새아침을 맞아야 한다. 한반도 구석구석, 남도의 한라에서 북녘의 백두에 이르기까지 새출발을 다짐하는 역사의 새아침을 우리의 역설 짙고과함한 발전음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오늘날은 민족의 분단과 가혹한 정치적 억압, 그리고 극단적인 제반의 모든 모순들을 밀쳐버리고, 그 근원은 파헤쳐 역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데 우리 단결의 과제, 민족의 통일과 조국의 자주·민주를 기수한 한해 한반도를 승리와 화해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에 앞장선 개성있는 명문대학입니다



외대의 2만5천여 동문들은 5대양6대주에서

선진조국의 역군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국어대학교는 진리·평화·창조라는 이념을 내걸고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학생 각 개인의 개성 발달과 지도력 인재를 도야하여 장차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이 이념을 구현하고자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교양을 함양 시키는 동시에 본 대학교의 특색있는 외국어를 토대로 각종 해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용을 교수 연구함으로써 국제 감각과 통찰력 및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세 계를 호흡하는 개성있는 명문
조화입니다.

한 물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여기에는 과학이 있다

107 열려있는 대학입니다.

24 개 외국어 분야와 인물, 사회
자연과학세력 및 사범계분야의[illegible]

ㄴ 전공제도와 복수전공제도를

모든 학생이 2개의 분야를 지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1 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의 국·공

학문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Figure 1

● 韓國

HANKU

사설

기사년(己巳年) 새해를 맞이하며
—결집된 힘을 깨고 역사의 정방향으로
지난 89년은 그 어느때보다 대중들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움직임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불붙어지고 분출하
고 있는 한해였다. 한해를 정리한다면 앞이 오히려 푸르
게 열리는 새로운 한해였지만 새해를 맞은 우리의 감흥
은 지나간 어느때보다도 확연히 구별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다.

기실 우리의 현실은 역사가 축적된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인식
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날 우리는 역사
를 정형화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범주로 치부해
버린 나머지 수없이 많은 학습관을 채워놓게 되었다.

따라서 굴절된 현실을 직면하고 역사의 정방향이라는
위치를 명확히 정해놓는 오늘날의 상황은 우리의 나아
갈 방향을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듯 현시국의 역사적 요구가 정방향에도 불구하고
새해부터부터 노정향은 「자유민주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그렇듯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안정적 지배체제구
축을 위한 전조작적이며 노정향의 단면을 서슴없이 자
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공정권과 대대적인 양심수 석방, 전
·이 사파·핵심, 통일당의 합당과 등의 위구적 계층적
속에서 진화되어 온 역사의 정치적 형태와 같은 맥락으
로, 올해에 예상되는 자신의 중간정부를 무사히 통과
정향성 확립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의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시대적응의 방향을 일정한 노정향의 안정
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운동세력들이 반
노정향성이라는 데부터 단선에서 결집하여 민주화운동
5공비밀주변법정부를 통한 광범위한 대중연전선동을
벌여 나가야만 한다.

또한 지금까지 본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정권의 인보
이념을무기로 삼아온 의외로 상호적대적 종족과 이질
문화와 양산이라는 토착의 모습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남북화해회담추진을 바탕으로 펼쳐진 국
·체속·정체화담을 다방면의 교류는 통일에 대한 온
계열의 뜨거운 열망을 대변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민족통일합선이라는
두 주된임무를 위한 부정부패의 극복이라는 적극적인
가치관임을 명시하고 정치적 담보제공을 통한 통일을 노
는 현정권의 반동일적 자세를 단호히 거부하고 통일과정
의 신기원을 개척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역사에서 우리는 시대적 조류에 순응하는 속
병통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현실을 더욱 암담하게 만든
사면을 용납하고 있었다.

하나 89년의 한해는 고분분한 민족과 함께하는 대
중의 관심을 전지구적으로 우리에게 강제해 주는 무
한한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역
량을 토대로 강력한 민주운동세력을 구축, 몰락시켜
이며 반민주적인 반포를 포박하는 어떠한 세력에게
도 굴복하지 않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는 일
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
회나 단체에서 자신이 맡
고 있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찾고 또한 그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내면의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가치는 사
회의 존경심을 받는 것에서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사
는 이러한 존재가치와 삶의
의미가 왜곡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기에게 살고 있는 시대
에 이름을 걸고 사는 사
람은 그 시대와 같은 보
를 취해야 한다」는 글은 시
년(?)으로 지배층에 기
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존재가치는 이
기 순수한 본래의 의미를 잃어 자신의 이
기적 권력을 채우기 위한 필적거리로 전
환해 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타락한 존재가치를 그것을 느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과 고통 속에서 충족되어 있다.

▲지난날 역사적 상황속에서 자신의 손
수익자였던 존재가치에 대해 인위화
시키려하는 자가 있는 반면, 열악한 사

의 환경속에서 존재가치의 의미조차도 체
념해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사회
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없
다면 그 생리적인 충족을 계속유지시키려
하고 이욕구가 실현되면 남에게 인정받
고 싶은 욕구가 또다시 발생하기 때문
이다.

정말 많은 이들이 존재가치로부터 소
외되는 것은 사로 대립하는 착취자와 피
착취자가 존재하며, 그 이
면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
순이 깔려있다는데 기인하
는 것이다.

▲존재가치의 구현이 개
개인의 사생활에서부터 좌우
된다는 사회정의의 이해 더
이상 생리적이어서는 안된다.

열악한 이양에는 그 의의
조차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억
압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자
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올바
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민해야한다. 예
미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으려면 모든 억압과 불평등은 과
감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시대 제반 모순에 대한 해결
책으로서의 해결책이 되어야 하며 그 주체
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귀를 귀를
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상실된
존재가치는 차츰 재타회 찾게 될 것이다.

▲한

성숙한 역사의식으로

◇박원수 총장 신년사



기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외
대인 모두가 건강하고 기
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분이 우리
의대의 학사가 원만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대과임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
하는 데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여러가지 상황들

가 없는 발전의 길을 활
아온데 대하여는 가슴 부푼
공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 학년도 시대변천에
순응하려는 학문의 정향을 재
정립하고, 운영의 질서를 새로이
확립하는 과정에서 전진적 변

화의 건설은 교수, 학생, 동
교, 교직원들 포함한 전원의
고정지향된 분사와 이해합
의 미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대중의 요구는
현재에도 불구하고, 5공비
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반민주적합법체제 5공정권
의 합리화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정향은 통일민주
지배체제인민주주의를 공
자신의 집권공약이었던 89년
대선으로 가져가려는 데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민족민주
통일민주 5공정권추진
추진에 역사 5공정권추진
추진에 역사 5공정권추진
추진에 역사 5공정권추진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전, 이구속처벌 투쟁
은 노태우퇴진 투쟁으
로까지 발전하지 못했

력을 수용하고 정서를 모
는 성숙한 노태우로 마
대발전을 추진하는 현
화되어있고, 믿어 마
입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역사
의 발전에서 다시 연
정을 추구하여, 대외
구현하는 일은 바로
진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가 요구하는 이
전선이라는 명제하에, 모
를 애고 배려하는 고
정향성을 나타내
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역사의
탐색에 있어서는, 현
에서 자제와 냉정하
고 있는 결과, 역사상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기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외대가족 모두
건강하고, 학업에 열
을 기울여주시기를 기
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회적
변화와 갖가지 갈등의 소
속에서 말없이 살아가
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정·경
문화의 각본에 걸려 역
사상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숙경 이사장 신년사



기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외대가족 모두
건강하고, 학업에 열
을 기울여주시기를 기
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사회적
변화와 갖가지 갈등의 소
속에서 말없이 살아가
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정·경
문화의 각본에 걸려 역
사상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이해와 협조로 새역사 창
조

로 나타내는 등, 사회적
을 받는 태도로서 새
전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대인 여러분, 역사
는 하늘과 땅의 이
인간들이 더욱 깊
한 힘이라는 옛사
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발전에 나
는 새로운 시대의
없는 단결과 협
합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수
행하면서, 새시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를 내딛을 때

